

# 장성군, 2년 연속 전남도 쌀 생산량 1위

### 생산단계부터 방제·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 ‘효과 특출’

### 유두석 군수 “장성 쌀 가치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장성군이 2018년에 이어 작년도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단보단 쌀 생산량 1위(491kg, 국가통계포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쌀 생산단계부터 기술 지원, 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쌀 농업 지원 정책을 펼친 점이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장성군은 쌀 재배 과정에서 경화장, 상토 및 매트, 맞춤형 비료, 육묘상자 처리제, 액상규산, 건조기, 지게차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벼 보급종 공급률도 높은 수확량을 거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전남도 내 벼 보급종 공급률은 종자 총 소요량 대비 40% 가량이나, 장성군은 두 배 높은 80%다. 이로 인해 재배 초기의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병해충 피해는 ‘공동방제’를 추진해 해결하고 있다.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사용해 단지별로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인 ‘병해충 공동방제’는 장성군이 일반 벼 재

배 전(全) 면적에 대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방제법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적기 방제가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또 방제 효과가 뛰어나며, 돌발 병해충 발생 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지녔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쌀의 소비처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아름찰벼, 흑찰 등 가공용쌀 및 특수미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장



성통합RPC과 CJ브리딩을 연계하고, 계약 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꾸준히 추진해온 쌀 농업 관련 맞춤 지원이 ‘2년 연속 도내 쌀 생산량 1위’라

는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농업인의 밭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장성 쌀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 곡성군, 공모사업 선정 전통시장 활성화 시동

곡성군은 지역 전통시장 3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과 석곡전통시장이 시장경영마우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장경영마우처 지원사업은 고객 유치를 위한 경품 및 할인 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선정으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국비 4,000만원, 석곡전통시장은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등 경품행사와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경영마우처 지원 2곳  
화재알림시설 설치 1곳

육과전통시장은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돼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

전통시장 내에 불꽃,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화재가 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시장경영마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않았지만 육과전통시장도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상인회가 사업내용을 알차게 구성해 시장상인과 이용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곡성군은 행사 진행 시 손소독제 및 고객용 마스크 비치, 시장 소독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 담양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담양군이 주 일자리에서 은퇴한 신중년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담양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담양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율학습모임을 운영하는 담양 귀촌 보듬 △농업기술관련분야 퇴직자가 귀농인 지역 정

작을 돕는 담양 귀농 다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제조경영개선 △기업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신중

년 법정 필수교육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용보험 미가입 군민으로 수행할 업무와 관련한 5년 이상 경력이나 관련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서

와 경력기술서 등을 작성하여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선발된 신중년 전문가는 2020년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주 20시간의 근무를 하며 자신의 전문경력을 지역민들과 나누게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 나주시, ‘배’ 유통 활성화 위해 가공업체와 업무협약

### ㈜엘빈즈·좋은영농법인과 MOU...신제품 개발·우수성 홍보등 협업 체계



나주시는 배 가공식품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 배’ 유통 활성화와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

나주시는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엘빈즈(대표 한윤재), 좋은영농

조합법인(대표 이기선)과 ‘나주배 유통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엘빈즈는 100% 나주 배로 만든 ‘어린이 배 도라지’, ‘배 도라지 워터젤리’ 등을 판매하는 충남 계룡시

소재 영·유아 이음식 유통업체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나주 노안면 소재 지역 업체로 HACCP(해썹) 인증을 통한 ‘배 도라지 주스’ 등 배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나주 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엘빈즈 김태현 이사, 좋은영농조합법인 이기선 대표 등 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엘빈즈와 좋은영농조합법인은 협약을 통해 향후 2년 간 나주 배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비롯해 맛과 효능의 우수성 홍보, 소비·유통 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안정적인 배 공급과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구례군, 산수유길 주민참여숲 나무심기 행사

구례군은 최근 산동면 위안리 산수유길 주민참여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10일 개최하였다.

구례군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수유길 주민참여숲’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는 남양홍씨 문중회, 상위마을회, 하위마을회, 구례군숲속의전남협의회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수국, 산수유 등 6종 18

천본을 식재하였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숲돌보미 협약을 체결하여 물주기, 비료주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컨설팅, 작업도구 등을 지원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군과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영암군  
YEONGAM-GUN

# 평일 밤속 한일

##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